

auri brief.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No. 128

2016. 4. 30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방안

손동필 연구위원, 조상규 연구위원

| 요약

- 국내 건축서비스 산업분야의 비중은 매년 축소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해외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매우 미비함
-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GNI 대비 0.13%인 ODA재원 비율을 OECD-DAC회원국 평균인 0.31%(2011년 기준)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따라서 ODA는 우리나라 건축서비스 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음
- 교통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진출하는 분야로, DEEP사업 위주로 해외로 진출하고 있으며, 정보제공, 역량강화, 사업발굴, 해외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농림수산분야의 경우 주로 공공부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 개발, 장기적인 사업으로 전환, 현지 주민의 참여유도 등을 추진함
- 타 분야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ODA를 활용한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은 단기전략(역량강화), 중기 전략(사업모델 개발 및 지원), 장기전략(MDB 및 국제기구 사업 진출)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기술지원(TA) 사업으로 진출하여야 함

1 배경 및 필요성

■ 건축서비스산업의 낮은 경쟁력으로 인한 해외진출 부진

- 건축서비스산업¹⁾의 매출 감소
 - 2013년 기준 국내 건설산업의 매출규모는 216조 9천억 원이며,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산업의 매출규모는 19조 7천억 원으로 건설산업의 9.1%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 건축서비스의 순수 매출규모는 5조 원으로 전체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매출의 25.2%임
 - 건축서비스산업 분야의 비중은 매년 축소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 또한 2007년 12.3%에서 2013년 7.0%로 점점 감소하여 열악해지고 있음
-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실적 부진
 - 우리나라가 해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 정도의 미미한 수준으로²⁾, 개별 기업의 수주 능력 또한 비교대상국들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건축분야의 해외사업은 더욱 낮은 수준으로 2014년 기준 5,100만 달러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건축서비스 업계가 해외에서의 경쟁력이 대단히 약하다는 것을 의미
 - 최근 해외 설계용역 부분 역시 2010년에 정점을 찍은 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ODA를 활용한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필요

-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으로 ODA 활용
 -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OECD-DAC)에 가입함으로써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의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ODA를 재원으로 한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연평균 약 50건 내외, 2~5억 달러 내외이며, 건축분야에서는 연 5건 내외의 공사를 수주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이하 GNI) 대비 0.13%인 ODA 재원 비율을 OECD-DAC 회원국 평균인 0.31%(2011년 기준)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하며, 건축서비스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 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2) 해외시장에서 국가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2014년 수익기준으로 상위 12개 국가가 전체 시장의 91%를 점유하고 있음. 미국이 31.7%로 가장 높았으며, 네덜란드(10.2%), 캐나다(10.0%) 순이며, 우리나라에는 1.9%로 11위

출처: ENR(2015), The Top 225 International Design Firms, <http://enr.construction.com/toplists/Top-International-Design-Firms/001-100.asp>(2015.08.28.) 재정리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을 통해 2020년까지 ODA재원을 GNI 대비 0.20%(약 3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천명함

- 타 분야의 기존 ODA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전략 모색
 - 기업의 입장에서 ODA사업에 진출하는 이유는 해외진출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지만, ODA사업은 기본적으로 비영리사업으로 저개발국가의 개발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어 ODA사업이 일반사업과 근본적으로 다른 기준과 과정을 바탕으로 진행됨을 의미
 - ODA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 역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성공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은 ODA사업에 진출하는 근본 목적과 이익 및 손해를 명확히 이해하고, ODA사업을 해외사업을 위한 투자와 경험을 축적하는 하나의 발판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함
 - 국내 타 분야에서 ODA를 통해 해외로 진출한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교통분야와 농림수산분야는 우리나라가 수원국으로서 타국의 ODA를 통해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ODA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여국으로서 타국에 도움을 많이 주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을 모색

2 타 분야의 ODA 현황과 전략

■ 교통물류분야

- 개요
 - 교통물류분야의 원조는 전 세계적으로 2013년 기준 186억 3천만 달러 규모로 ODA 시장에서 큰 부분 중의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2억 3,170만 달러가 지원 되었고,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가 지원 하는 차관의 경우 2014년 집행실적 기준으로 2,298억 9천만 원(36.4%)이 교통 분야에 지원됨
 - 교통물류분야는 KOICA의 무상원조 5대 중점 분야인 산업에너지분야의 하나로서 도로인프라 구축, 철도인프라 구축, 항만인프라 구축, 공항인프라 구축, 교통물류종합 개발의 다섯 가지 하위 중점 프로그램이 있음

- KOICA의 교통분야 사업은 수원국에 교통부문 정책자문,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실시설계 등 기술협력을 제공하는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사업이 주류임

•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³⁾

- 교통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ODA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오랫동안 민간부문의 해외 진출에 ODA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해 왔음
- 교통분야에서는 ① 발주처에 대한 정보 부족, ② 발주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 ③ 사업 수행에 따른 위험도 분석 능력 부족, ④ 내부역량 부족, ⑤ 공공과 민간의 연계 미흡 등 다섯 가지를 해외진출의 장애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활성화 전략으로 아래 네 가지를 제시

교통분야의 ODA를 활용한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

정보 제공	교통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DB 구축, 공공기관의 특성을 활용하여 양해각서 체결과 인력 파견, 공동 연구를 통한 정보교류로 국제기구와 재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
역량 강화	인적 역량강화와 해외사업 지원을 위한 조직체계 정비 및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사업 발굴	전 세계적 논점과 흐름에 대해 이해하고 국내 경험을 연계하여, 전통적인 도로 중심의 사업에서 철도, 항공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민간과 공공의 협동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한다.
해외 사업 추진 지원	공공기관에서 해외사업을 위한 정보 HUB기능을 확보하고, 다양한 민간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해외사업 시행 경험을 DB화 하여 향후 사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사례

- 필리핀 부수양가 공항개발사업은 부수양가 공항의 신축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해 인적 물적 수송용량을 확충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 공항개발사업을 통해 필리핀 지역의 여행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관광산업 진흥 및 물류처리 역량이 강화

• 시사점

- 교통분야 KOICA사업의 상당수가 DEEP사업으로 운영
- 무상원조 ODA사업을 타당성 조사와 같은 기술지원(TA)에 주로 활용하고, 유상원조인 EDCF차관을 실질적인 시설 사업에 활용
- 유무상의 확실한 역할 분담과 서로간의 연계를 통해 EDCF 차관과 민간투자의 적절한 병행이 필요

3) 박진영(2014), “교통부문 해외 진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전략”, 「KOTI Global Brief」, Vol.1 Iss.1, 한국교통연구원

KOICA 교통분야 사례

사업명	필리핀 부수양가 공항개발사업
시행기관	KOICA, [시공 : 서광종합개발, CM : 선진엔지니어링] 필리핀 교통통신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Communication)
사업규모	300만 달러
사업기간	2006 ~ 2008년
사업대상	<p>필리핀 팔라완주 코론시 부수양가(Busuanga) 공항</p>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 특성상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항 시설 확충이 필요 필리핀 정부는 공항 시설 확충을 추진하는데 기술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필리핀 정부가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팔라완주의 부수양가 공항에 대한 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 지원을 요청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터미널 신축 및 행정건물, 소방건물 등 개보수 기존 활주로 포장 및 이착륙 시설 정비 소방차, 트랙터 등 공항 기자재 지원 공항 운영기술 전수를 위한 국내 조정 연수 기타 사업 관리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여행서비스 수준 향상 수송용량 증대로 인한 지역 관광산업 진흥 및 물류 처리 역량 향상

※ 출처 : KOICA(2015), 「함께읽는 KOICA사업 이야기 : 산업에너지분야」, pp.343-345, <http://www.koica.go.kr/img/pdf/7.pdf> (2015. 05. 15.)

■ 농림수산분야

• 개요

- 저개발국의 상당수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빈곤 퇴치와 수원국의 국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림수산분야에 꾸준히 지원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농림수산 분야의 지원 규모는 2013년 기준 102억 1천만 달러, 우리나라의 지원은 9,850만 달러 규모임

•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⁴⁾

- 농림수산업의 경우 해외진출을 모색할 만큼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민간분야보다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은 아래 세 가지가 있음
- 첫째,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를 개발하고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강점인 신품종 개발을 통한 식량증산의 성공 경험, 원예와 특작물 개발과 생산을 통한 소득증대, 소농 중심의 농업 구조 조정의 성공 경험을 적극 활용
-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기간(2년 이내) 동안의 은퇴자와 자발적 참가자 중심의 전문가 파견과 1년 이내의 연수생 사업을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관련 노하우와 기술을 실질적으로 전수 가능
- 셋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거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

• 사례

-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사업모델로 하여 ‘새마을사업’이라는 타이틀로 마을단위 생활환경과 주민 삶의 질 개선, 거버넌스 구축, 지역 여건에 맞춘 적정기술 활용을 통해 지속적인 개발을 도모
- KOICA는 새마을운동을 한국형 ODA모델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새마을 ODA라는 명목으로 국제기구협력에 150억 5천만 원(2015년 기준)을 원조하고 있으며, 이는 KOICA가 직접 수행하는 새마을 ODA사업(191억 1천만 원)에 버금가는 원조 금액임

4) 박진영(2014), “교통부문 해외 진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전략”, 「KOTI Global Brief」, Vol.1 Iss.1, 한국교통연구원

KOICA 새마을운동사업 사례

사업명	ESCAP(지역빈곤 원화사업) 스리랑카, 라オス,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농촌개발사업 2차
시행기관	KOICA
사업규모	125만 달러
사업기간	2006~2008년
사업대상	라오스 팍남 군, 캄보디아 캄퐁참 주, 인도네시아 웨스트 자바 및 반탄 주, 스리랑카 케골 및 라트나푸라 주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필요 • 농촌의 빈곤 해소와 농촌지역 개발을 위해 지역 간 수평적, 수직적 연계가 가능한 농촌개발 모델 모색 • 지역빈곤 원화사업 1단계에서 가능성 확인 후 지속가능한 개발 모델 수립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운동 개념 및 수행방법 소개, 마을 지도자 및 프로젝트 관리자 연수 • 사업대상지 교환방문 교육 • 도로 정비 및 마을안길 개선, 우물 및 화장실, 샤워시설 설치 • 학교 확장 및 개보수 • 마을환경 정화 및 마을회관 건립 • 관광인프라 구축 • 가이드라인 및 교재 개발, 웹사이트 개발 및 영상 음성 교재 출간 • 지역 워크숍 개최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공무원 및 마을 지도자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교육 내용 전파 •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을 통한 실효성 있는 농촌 개발 • 사업 실시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을 통해 농촌개발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론 도출

※ 출처 : KOICA(2015), 「함께읽는 KOICA사업 이야기 : 지역개발」, p.291, <http://www.koica.go.kr/img/pdf/5.pdf>(2015.05.23.)

- 시사점

- KOICA 새마을운동사업 사례의 특징은 수원국의 실정에 맞는 원조 방향을 국내 경험에서 도출해냈다는 것
- 건축서비스분야에서도 첨단 기술을 사용한 건축보다는 현지 여건에 맞는 주택개발이나 도시계획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

3 정책 제언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작성

- 건축서비스산업에서 ODA를 활용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대상국의 자체 재정사업이나 민간발주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교통분야 ODA사업처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적절히 병행하여야 함

- 국내 ODA사업 →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사업 → 타 국가 비구속성 사업 → 국제기구 금융투자사업 → 해외진출 대상국 재정사업 또는 민간발주사업 순으로 사업을 확대하거나⁵⁾, 이와 유사한 단계로 ODA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ODA를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 전략과 방안

- (단기 전략) 정보수집 및 분석, 전문인력 양성, 개발도상국 민간네트워크 형성 등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
- (중기 전략) 우리나라의 장점을 살린 ODA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금융지원, 건축전문관 확충 등 공적인 지원 및 네트워크를 포함
- (장기 전략) 기술지원(TA)사업을 포함하여, MDB와 국제기구사업의 수주뿐만 아니라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제안하는 것이 최종 목표



ODA 활용을 위한 단계별 전략과 방안

손동필 연구위원 (044-417-9685, dpson@auri.re.kr)

조상규 연구위원 (044-417-9625, blaster@auri.re.kr)

5) 권영상 외(2015). 「건축산업 고도화를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 정책방향」, p.8,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외

